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

배호남*

|| 차례 ||

- I. 머리말
- II. 근대 전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
- III. ‘타자성’으로서의 ‘님’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를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을 통해 해석하려 한다. 본 논문은 ‘님’의 다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석으로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타자성’을 제시한다. ‘님’의 의미를 ‘타자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가지는 윤리학적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다.

만해는 1944년 입적했고, 레비나스의 첫 번째 대표적 저작인 『존재에서 존재자로』는 1947년 출간됐다. 그러므로 만해가 레비나스의 철학을 접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만해와 레비나스는 서로 영향관계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문학과 철학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나-주체’가 ‘님-타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강조되는 윤리적인 문제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배자로서의 경험(한용운)과 독일 나치즘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의 경험(레비나스)이 생면부지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근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동일한 반성을 하게 했다. 이 반성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복원하고, 주체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초월을

* 초당대학교 교수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시집 『님의 침묵』의 현재적 의미는 고통받는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주체의 자기 ‘초월-벗어남’에 있다. 유럽에서 레비나스가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체계화한 철학의 윤리학으로의 전환을, 동아시아에서 한용운은 한 세대 앞서 문학적으로 선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님’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든, 레비나스가 말했던 고통받는 타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만해는 『님의 침묵』을 통해 이타성의 타자가 내리는 윤리적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의 다의성을 포괄할 수 있는 철학적·윤리학적 개념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한용운, 레비나스, 님의 침묵, 님, 타자, 타자성, 윤리철학, 전체주의

I. 머리말

만해 한용운의 연작시집 『님의 침묵』(1926, 회동서관)에서 ‘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해를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님’은 빼앗긴 조국인가? 그를 승려이자 불교사상가로 본다면, ‘님’은 불타(佛陀)인가? 혹은 중생(衆生)인가?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 본다면, ‘님’은 사랑하는 여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닐 수 있는가?

김재홍은 ‘님’을 구조적 개념으로 본다. 그는 『님의 침묵』에서 ‘님’이 “개인적인 층위로서 연인에서 시작되어 사회적·역사적 층위로서 조국이나 민족, 민중, 그리고 신성사적 층위에서 불타나 진여·진제를, 그리고 생명이나 양심·정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 개념인 것이 분명하다”¹⁾고 본다. 그러면서 이 구조적 개념은 근원적으로는 진아(眞我)로 수렴된다고

1) 김재홍,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시안』1호, 1998. 9. p.225.

본다. 불교의 自他不二門 관점에서 보면 님과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며, “따라서 님은 『심우도』에서 찾아 헤매는 소의 형상과 그대로 대응된다. 이 점에서 『님의 침묵』에서 님은 바로 소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의 존재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²⁾고 보았다.

이후로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구도의 과정으로 보고 ‘님’을 『심우도』의 소에 대응시키는 연구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 구연상은 『님의 침묵』 88편 연작의 님 찾기 과정을 1) ‘나’가 ‘떠나버린 님’을 다시 되찾기 위해 길을 헤매는 과정, 2) 그 ‘님’의 발자국을 되쫓는 단계, 3) ‘님’을 다시 찾았지만 ‘님의 기쁨’을 끝내 다시 잃어버리는 단계, 4) ‘나’가 자연과 인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님’을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행복의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심우도가 나타내는 심우(尋牛), 견적(見跡), 견우(見牛)와 득우(得牛), 그리고 목우(牧牛)에 견주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나’는 “님과의 헤어짐과 만남,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깨닫고 받아들여 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경지는 심우도에서 기우귀가(騎牛歸家)의 노래로 그려진다”³⁾고 보았다. 주목할 것은 이 논문의 저자인 구연상이 문학 전공자가 아닌 하이데거 철학 전공자이며, 이 논문이 실린 지면 역시 ‘한국하이데거학회’의 『존재론연구』라는 점이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지닌 형이상학적 면모가 철학 전공자들에게까지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증거라 하겠다.

한경희는 『님의 침묵』의 ‘님’이 선(禪) 언어인 ‘심인’의 구현으로 보았다.⁴⁾ 이 역시 님의 의미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다. 반면 김동우는 ‘님’을 숭고한 대상으로 보고 『님의 침묵』의 숭고미를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2) 위의 책, 위의 페이지.

3) 구연상, 『『님의 침묵』에서의 ‘님 찾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존재론연구』23호, 2010. 10. p.171.

4) 한경희, 『한용운 『님의 침묵』 연구』, 『어문학』113호, 2011. 9. p.407.

‘님’은 대상의 숭고이며, 님에 대한 ‘사랑’은 주체의 숭고이다. 『님의 침묵』은 “‘님’의 표지인 ‘침묵’을 ‘사랑’의 표지인 ‘노래’가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⁵⁾

외국 시와의 비교를 통해 ‘님’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 특히 타고르 시와 만해 시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 하재연은 『기탄질리』와 『님의 침묵』 비교 분석을 통해 『기탄질리』의 문체와 사상이 한국 근대시 형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⁶⁾ 이상엽은 17세기 영국의 형이상학과 시인인 존 던의 『신성한 소네트들』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비교 분석하는 독특한 연구를 보여주었다.⁷⁾

한편 이선이는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썼던 1920년대 한국시와 만해시의 영향관계를 고찰했다. 특히 육당 최남선과 안서 김억과의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밝혔다.⁸⁾ 이선이는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에서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를 밝히는 연구를 행하기도 했다. “만해는 불교적인 언어를 대중적인 언어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서 자기를 열어젖히는 대승적인 면모를 보였”⁹⁾이라고 평가했다. 서준섭은 만해가 『님의 침묵』을 쓰기 바로 전 집필한 『심현담주해』와 『님의 침묵』의 상호텍스트성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님’에 대한 사랑과 구속은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의미하며, 그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5) 김동우, 「숭고와 계몽의 역설 : 한용운 시의 현재성」, 『한국시학연구』24호, 2009. 4. p.86.

6) 하재연, 「‘조선’의 언어로 한용운에게 찾아온 ‘생각’」, 『한국근대문학연구』20호, 2009. 10. p.277.

7) 이상엽, 「존 던의 『님의 침묵』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 『밀턴과근세영문학』21호, 2011. 5. p.29.

8) 이선이, 「萬海詩와 當代詩의 영향관계에 관한 일고찰 -시어 ‘님’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20호, 2007. 12.

9) 이선이, 「萬海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 『한국시학연구』11호, 2004. 11. p.156.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¹⁰⁾ 엄성원은 『님의 침묵』을 탈식민주의적 방법론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이 연구를 통해 『님의 침묵』의 ‘님’이 피식민 민족으로서의 ‘하위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¹¹⁾

이처럼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는 다각도로 조명되어 왔다. ‘님’은 불교적이기도 하고, 민족주의적이기도 하며, 탈식민주의적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의성(ambiguity)은 만해 스스로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시인은 언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자다. 하물며 그가 불교에 귀의한 구도자였음에야. 도(道)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이지만, 만해는 그가 얻은 깨달음을 시의 언어로 전환하여 당대의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님의 침묵』의 ‘님’은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문 연구자는 시인이 아니다. 연구자는 시인의 다의적 언어에서 그 의미망의 관계를 규정해내야 한다. ‘ambiguity’는 ‘다의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종종 ‘모호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시인이 언어로 지어 놓은 모호한 건축물에서 다양한 의미의 길을 찾아나가는 자다. 우리가 “『님의 침묵』의 ‘님’은 연인이자 불타이자 중생이자 조국이며 그 모든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님’의 의미를 시적 언어의 모호성 안에 남겨놓게 된다. 만해가 의도한 ‘님’이라는 시적 대상의 다양한 의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지을 순 없을까? ‘님’의 다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타자성’이다.

『님의 침묵』을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에 기대어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10) 서준섭, 「한용운 『님의 침묵』과 『심현담』·『심현담주해』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014. 4. p.56.

11) 엄성원, 「한용운 시의 탈식민주의적 특성 연구」, 『한국문화이론과비평』31호, 2006. 6. p.35.

있다. 바로 정연정의 『만해 한용운 시에 나타난 ‘바다’ 의식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¹²⁾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님의 침묵』의 ‘님’의 의미를 한용운의 전기적 사실에 기대어 너무 쉽게 ‘백담사에서 만해가 『십현담주해』를 집필하고 있을 때 그를 시중들었던 서여연화라는 보살』¹³⁾로 상정하고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한 뒤, 주된 논의를 바슐라르의 시학에 기대어 ‘바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연정의 논문은 ‘님’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그 방법론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논의가 논문의 전체 주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지엽적인 해석에 머물렀다는 단점을 지닌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와는 달리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시집 『님의 침묵』의 ‘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려 한다.

지금껏 ‘님’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의 상당량이 ‘님’을 불교적 상징으로 보는 방식을 택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나’와 ‘님’이 맺는 다층적 관계를 도식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주체와 타자의 욕망을 일의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주체의 욕망의 변증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¹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님’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나’와 ‘님’의 관계의 해명을 우선적으로 전제”¹⁵⁾해야 한다. 왜냐면, 본 논문의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님’의 ‘님다움’은 주체가 타자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느냐에 달려있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님’의 의미를 ‘타자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가지는 윤

12) 정연정, 『만해 한용운 시에 나타난 ‘바다’ 의식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12권 1호, 2013. 6.

13) 위의 글, 위의 책, p.164.

14) 장철환, 『한용운 『님의 침묵』 연구 -주체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론총』55호, 2011. 12. p.232.

15) 위의 글, 위의 책, p.231.

리학적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I. 근대 전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

에마뉼엘 레비나스는 1906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한다. 그러나 6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 1945년 종전까지 독일의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프랑스 군인으로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인 레비나스에게 오히려 행운이었다. 유대인 민간인으로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향 리투아니아에 있던 그의 가족은 모두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했다.¹⁶⁾ 이런 끔찍한 경험은 레비나스로 하여금 근대 서구 문명에 관한 본질적인 회의를 가져왔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15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받아온 유럽이 이처럼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쟁의 폭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¹⁷⁾ 레비나스는 제국주의 전쟁으로서의 제1, 2차 세계대전이 서양 근대철학과 서로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그가 보기에 서구의 존재론은 타자를 환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이다. 그는 타자의 환원 불가능한 고유성(즉 타자성)을 무시하고 타자를 전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데서 근대 주체철학의 지배적인 사유 방식을 발견한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상실하고, 타자를 지배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이념을 강요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타자를 동일자

16) 에마뉼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p.188.

17) 에마뉼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p.120.

(즉 ‘나’)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유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결국 레비나스는 ‘나’라는 동일자로 결코 흡수되지 않는 ‘타자’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 타자에 대해 내가 가지는 윤리적인 책임성이 주체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근본이 된다고 주장한다.¹⁸⁾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철학은 인식론적으로는 타자의 고유한 타자성을 받아들이는 존재론이며, 실천론적으로는 주체 중심의 욕망을 버리고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이를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환대’라고 부른다) 윤리학이다.

만해 한용운은 1944년 입적했다. 레비나스의 첫 번째 대표적 저작인『존재에서 존재자로』는 1947년 출간됐다. 그러므로 만해가 레비나스의 철학을 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레비나스가 타고르의『기탄질리』를 읽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듯 만해와 레비나스는 서로 영향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해는 1908년 일본의 조동종대학을 찾아가 청년 승려들이 주축이 된 화융회(和融會)에 가입했으며, 그 기관지인『화융지』에 한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화융지』에는 “한용운 군이 9월 1일 귀국하였다. 금년 중에 다시 돌아올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어 만해가 1908년 일본체험 후 귀국할 때에 일본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⁹⁾ 1919년 3.1운동으로 체포된 뒤 동년 7월 1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인 검사의 취조에 대한 답변으로『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썼는데, 여기에는 “조선의 문명이 일본에 미치지 못함은 사실인즉, 독립한 후에 문명을 수입하려면 일본을 외면하려면 달리 길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만해는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면서도 문명사적으로 조선이 일본보다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지녔다.²⁰⁾

18) 서동욱 역, 앞의 책, pp.193-194.

19) 이선이, 앞의 글, 앞의 책, p.140.

물론 이러한 점이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이러한 점이 만해를 다른 저항문인들과 구별되는 그만의 독특한 지점이 된다고 보는데, 이는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불교사상가로서의 면모가 가장 앞섰다는 데 있다.

만해의 삶과 문학은 불교사상가와 독립운동가 두 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 담론에서 진행되어온 만해 연구의 문제점은 만해의 삶을 민족주의적 이상에 부합하는 인물로 가공하는 혐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만해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산 것은 사실이나, 그는 일본을 멸해야 할 적대국가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교근대화사상이 반영된 불교 관련 저작에는 일본불교의 수용과 극복이 공존하는 면을 찾아볼 수도 있다.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근대불교의 정체성을 ‘평등주의’와 ‘구세주의’에서 찾았다. 또한 『개벽』45호에 발표한 「내가 믿는 불교」라는 글에서는 “불교의 敎旨는 평등입니다. 석가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나 物은 다 각기 佛性을 가졌는데, 그것이 평등입니다. 오직 迷悟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략>- 깨달으면 마찬가지입니다.”라며 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만해가 불교를 ‘철학적 종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만해에게 불교는 종교 자체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언제나 심오한 철학을 지닌 종교였다. 만해가 철학으로서의 불교에서 ‘평등’을 얻어내고 종교로서의 불교에서 ‘구세’를 얻어내어 이를 근대불교의 정체성으로 삼은 점은 매우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²¹⁾ 이러한 평등과 구세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은 아니다. 만해는 물론 피식민지인 조선인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것이지만, 그 저항의 목표가 일본이나 일본인의 절멸에 있지는

20) 엄성원, 앞의 글, 앞의 책, pp.51-52.

21) 이선이, 앞의 글, 앞의 책. pp.143-144.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닌 일제의 군국주의가 일본인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동아시아 민중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그의 평등과 구세는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을 포함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었다. 평등주의와 구세주의라는 만해의 독특한 불교사상은 타자를 동일자(주체)로 환원하는 근대 철학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비판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제1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을 주창했던 레비나스의 타자철학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하겠다.

만해의 문학과 레비나스의 철학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 바로 ‘나-주체’가 ‘님-타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강조되는 윤리적인 문제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배자로서의 경험(한용운)과 독일 나치즘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의 경험(레비나스)이 생면부지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근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동일한 반성을 하게 했다. 이 반성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복원하고, 주체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초월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집『님의 침묵』의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님’이 어떤 면에서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Ⅲ. ‘타자성’으로서의 ‘님’의 의미

우리는 ‘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시집『님의 침묵』의 「군말」에서 찾을 수 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著者²²⁾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군말」은 시집 『님의 침묵』의 서시 혹은 서론 격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첫 문장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를 보자. 정효구는 이 문장에서 앞의 ‘님’과 뒤의 ‘님’을 구분해서 보고, “전자는 남녀간의 세속적이고 에로스적인 충동이 만들어낸 중생적 연정에서 비롯된 님이라면, 후자는 남녀 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선, 세속적이라는 小我性을 넘어선, 에로스적 충동이라는 성애를 넘어선, 無我的 보살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작용한 님이다.”²³⁾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만해가 1920년대 “당대에 자유연애지상주의라는 연애 세태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는 점”²⁴⁾에서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진정한 ‘님’은 누구인가?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정효구는 ‘기루다’라는 동사의 함의를 “자아를 넘어서서 그 무엇인가에 公心을, 대아적 사랑을, 자발적 無我的 마음을 내고 비치는 일” “달리 표현하여 公心 혹은 無性的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는 불교적 마음의 이상태이자 佛性的 구현태이고, 종교적

22) 한용운, 『님의 침묵』, 미래사, 1991. p.11.

본 논문에 실린 『님의 침묵』의 시 인용은 옛 철자법을 현대 철자법으로 바꾼 미래사 판본을 따른다.

23) 정효구,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속의 「군말」 再考」, 『한국시학연구』35호, 2012. 12. p.384.

24) 이선이, 앞의 글, 앞의 책, p.150.

영성의 실현상”²⁵⁾이라 보았다. ‘님’과 ‘기름’을 해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효구의 해석의 핵심은 ‘자아를 버리고 타자에게로 나아간다’에 있다. 결국 ‘님’이라는 대상과 ‘기루다’라는 행위는 타자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고 포용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에 닿아 있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라는 형용사이다. 이를 레비나스의 용어로 말하면 ‘타자 일반’이 될 것이다. 이 타자 일반은 ‘나’가 그를 ‘기름’ 때 비로소 ‘님’이 된다. 문제는 “‘님’이 누구인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 맺어야만 ‘님’이 되는가?”이다. 만해는 친절하게도 다음 문장에서 이 관계 맺음의 예를 네 가지나 들고 있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나의 님은 이태리다.” 이 네 쌍의 관계 맺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름’의 의미 그대로 자발적 헌신과 자아를 버린 사랑이다. 자연스레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라.”라는 다음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주체의 자기중심적 욕망을 통해 타자를 동일성의 폭력 아래 복속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전체성의 철학에 대항해서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타자의 본래적 가치와 이에 대한 주체의 책임을 보여 주는, 평화를 추구하는 지향을 보여준다.²⁶⁾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인 ‘님-타자’는 처음에는 부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군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 『님의 침묵』을 보자.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

25) 정효구, 위의 글, 위의 책, p.385.

26) 강영안 역, 앞의 책, p.120.

고 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전문

엄성원이 지적했듯이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의 부재가 주체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사실에 있다.²⁷⁾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1961)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이 “무한자의 이념에 근거한 주체성을 변호하는 데 있다”고 썼다. 이것은 주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중심 주제임을 뜻한다.²⁸⁾ 이때 레비나스가 다시 생각하는 주체는 자기동일성의 이념에 사로잡힌 소아병적 주체가 아니다. ‘님’이 ‘나’의 곁을 떠난 순간, 주체는 타자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27) 엄성원, 앞의 글, 앞의 책, p.40.

28) 강영안 역, 앞의 책, p.121.

계기를 얻는다. 레비나스는 이 자기 실현 과정을 ‘분리(*la séparation*)’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은 자아를 타인과 사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즉 자기동일성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설 자리를 ‘세계 속에서’ 점유하는 것을 뜻한다.²⁹⁾ 이 자기중심적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 파악되는 ‘님-타자’는 이해되지 않는, 침묵하는 대상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에게 낯선 이로, 나의 삶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다. 타자는 주체에게 완전한 외재성(*extériorité*)이다.³⁰⁾ 그런데 이 외재성은 익명성이 아니다. 레비나스의 타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만해는 『님의 침묵』에서 타자의 외재성을 깨닫는 일을 ‘이별’이라는 사건으로 표현했다. 레비나스는 공동체 안에서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을 노동, 참여, 향유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노동’은 인간의 삶에 지배와 소유의 차원을 열어 준다. 노동을 통해 타자는 분명한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되며, 생존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확립하고 주변 세계를 노동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2) ‘참여’는 주체와 타자가 제3의 것, 공동의 것(국가, 민족,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참여이며, 개별자들의 가치는 이 공동의 것을 통해 가능된다. 레비나스는 참여를 통해 만나는 타자를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 부른다. 타자 자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특정 가치 등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의 타자라는 뜻이다. 참여 속에서 개별자의 개별성은 사라지고 전체로서의 합일만이 남는다. 즉 공동의 이념은 각자의 타자성보다 우월하며, 이런 의미에서 참여 일반은 존재론적으로

29) 위의 책, p.129.

30) 위의 책, p.139.

전체주의의 이념을 숨기고 있다.³¹⁾ 3) ‘향유’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이 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즐기고 누리는 방식이다. 향유를 통해 자아는 스스로를 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이를 통해 진정한 주체성의 모습이 최초로 드러나는 것으로 레비나스는 본다. 그러나 향유는 순간적인 것이 불과하다.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자면 ‘일시적 규정으로서의 이타성’이다.³²⁾

그렇다면 인간 주체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이타성에 도달할 수 없는가? 레비나스의 용어로는 주체로부터 ‘벗어남’(ex-cendence: 흔히 ‘초월’로 번역되는데, 『존재에서 존재자로』의 역자 서동욱은 ‘벗어남’이라 번역했다)이 불가능한가? 주체는 죽음이라는 가장 위협적인 타자를 만남으로써 이 ‘벗어남’을 예비한다. 죽음은 스스로 경험될 수 없고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추체험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수동적인 경험이다. “죽음 앞에서 주체는, 주체라는 자신의 지배를 상실한다.”³³⁾ 죽음은 향유와는 달리 ‘절대적인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타자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주체를 자기동일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결국 이 벗어남의 가능성은 ‘희망’과 ‘사랑’으로 귀결된다. ‘님’과의 “이별을 쓸데 없는 눈물의 源泉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슬픔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라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을 통해 ‘님-타자’와의 이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質) 없는 황금과, 밤의 울(系) 없는 검은 비단과,

31) 서동욱 역, 앞의 책, pp.207-208.

32) 강영안 역, 앞의 책, pp.129-131.

33) 서동욱 역, 앞의 책, p.210.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며,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오 이별이여.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전문

시 『님의 침묵』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별은 미의 창조』다. 이제 ‘님-타자’와의 이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창조다. 이 아름다움이 예술작품으로서 시의 아름다움이 아님은 분명하다. 만해는 1926년 『님의 침묵』발간 이후 더 이상 시집을 묶지 않았다. 시집 『님의 침묵』은 그의 사상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에게 문학은 미적 자율성을 확보한 제도라기보다는 계몽의 자장 안에서 사상과 미분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⁴⁾ 위의 시에서 이별은 주체의 새로운 탄생, 전체주의적 주체로부터의 ‘벗어남’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된다. “이별이 아니면” 주체는 “눈물(즉 슬픔)에서 죽었다가 웃음(즉 희망)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의 가능성, 초월과 벗어남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레비나스는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에 대한 발견과 사랑은 우선 아이의 출산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나의 아이는 ‘타자가 된 나(moi étranger à soi)’이다. 나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나의 이기주의, 자기동일성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벗어난다.³⁵⁾ 출산은 지배가 될 수 없다. 아이의 가능성은 아버지의 가능성이 아니며, ‘아버지-주체’의 힘이 거머쥐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미래는 가능성 너머에서, 투사(project) 너머에서 생겨

34) 이선이, 『萬海詩와 當代詩의 영향관계에 관한 일고찰 -시어 ‘님’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20호, 2007. 12. p.346.

35) 강영안 역, 위의 책, p.147.

난다.”³⁶⁾ 그러므로 “부성(父性)은 언제나 타인인 낯선 이와와 관계이다.” 그런데 이 ‘나의 아이’는 타자이면서, 여전히 ‘타자가 된 나’이다. 아이의 미래는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타자의 시간이면서도 여전히 나의 모험일 수 있다. 이 미래에의 열린 가능성, 주체가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동력이 곧 부성(父性)이라는 ‘사랑’이다.

출산을 통해 유한한 존재자가 무한을 향해 초월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출산은 [생물학적 범주이기보다] 존재론적 범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³⁷⁾ 레비나스 타자철학의 항상적인 과제는 ‘나’라는 주체로 절대 환원되지 않는, ‘이타성’을 지닌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주체의 초월이 가능한가를 해명하는 일이다. 출산은 이런 타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일 뿐이다. 생물학적 사건인 ‘출산’이 존재론적 범주로 전환되는 사건을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의 현현(épiphanie)에서 찾는다. 타인의 얼굴은 주체의 시선으로 포획되지 않는다. 얼굴은 바라보고 호소하며 스스로 표현한다. 레비나스는 『윤리와 정신』에서 타인의 얼굴에 대해 이렇게 쓴다. “얼굴을 통해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 얼굴은 열려 있고, 깊이를 얻으며, 열려 있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 준다. 얼굴은 존재가 그것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이다.” 레비나스는 이 방식을 ‘계시’라고 부른다. 이 종교적 용어는 얼굴의 현현은 주체가 부여한 의미보다 타인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³⁸⁾

그렇다면 타인의 얼굴이 지닌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타인의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 근거하고 있다. 타자의 타자성은 모

36) 서동욱 역, 위의 책, p.214.

37) 서동욱 역, 앞의 책, p.215.

38) 강영안 역, 앞의 책, pp.134-136.

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 고통받는 얼굴의 모습으로 주체에게 현현한다. 고통받는 얼굴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모습이다. 이 무저항의 고통받는 얼굴은 주체의 전체성을 무력화시키고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저항’을 보여준다. 이것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나약함과 다르다고 레비나스는 말한다. 오히려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은 주체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들의 무력함 자체가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명령이다. 레비나스는 이를 ‘영광스런 비천함’이라 부른다. 타자는 (성서에서 흔히 쓰이듯) 가난한 자와 이방인,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얼굴은 타자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주인의 얼굴은 주체의 자유를 문제 삼는다. 근대의 자유는 주체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실행하는 자유이다. 주체는 객체와의 투쟁에서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객체를 주체의 인식 밑에 노예로 삼는다. 그러나 이 주노(主奴)의 변증법은 레비나스에 이르러 역전된다. 타인의 곤궁하고 무력한 얼굴에 부딪힐 때 주체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책임과 의무에 대한 호소는 더욱 커진다. 자유는 이때 책임 있는 관심과 헌신으로 전환된다.

『군말』의 두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 보자.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만해는 여기에서 주체의 자유를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타자철학의 윤리학은 주체에게 주인이 아니라 노예일 것을 요구한다. 이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야말로 주체가 소아적 자기동일성을 벗어나 무한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너희(전체성 안에 갇힌 주체들)는 ‘알량한 자유’ 즉 근대적 주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

한된 자유에 머물지 않느냐고 만해는 되묻는다. 그런 주체에게 ‘님-타자’와의 만남, 고통받는 얼굴의 현현은 없다. 그들이 마주대하는 것은 ‘님(타자성)’이 아니라 너(자기 주체)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를 레비나스는 “‘자아’의 ‘자기’에 대한 연루”라고 표현한다. “자아는 어떻게 모면해 볼 도리 없이 자기이다.”³⁹⁾ 이 숙명적인 연루를 레비나스는 인간의 신체와 그에 붙어 있는 그림자로 비유해 설명했다. 근대적 자아는 자기 자신의 무거운 욕망을 그림자처럼 질질 끌고 다닌다.⁴⁰⁾

우리는 주체의 자유에 대한 윤리학적 명령의 시적 응답을 만해의 시『복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전문

첫 행의 ‘남들’은 자기동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체들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주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근대의 허울뿐인 자유를 사랑한다. ‘나’는 자유를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한 주체다. 그는 “이름 좋은 자유”를 모르지는 않지만,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 행하는 윤리적 명령에

39) 서동욱 역, 앞의 책, p.147.

40) 위의 책, p.41.

복종하는 자이다. 이 복종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하다. 달리 보면 이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의 요체다. 타인의 고통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얻는 보상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얼굴은 주체에게 보편적인 인간성을 열어주는 길이다.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주체는 타자 일반의 타자성과 조우한다. 그리고 나의 재산과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타자와 동등한 사람이 된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들어간다.⁴¹⁾ 근대불교사상의 핵심을 ‘평등’과 ‘구세’로 파악했던 만해였기 때문에 이렇듯 자유와 복종의 관계를 역전시켜 시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연의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체 안에 여전히 내재된 전체주의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레비나스는 전체성에 대한 갈망, 타자를 자신과 동일화하려는 욕구를 인간 본성에 내재한 ‘숨겨진 악’으로 보았다. 이 숨겨진 악에 복종할 때 인간 존재는 문명의 뒤편에서 야만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주체의 전체성에 대한 복종과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대한 복종은 양립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만해는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라 쓴 것이다.

레비나스는 주체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이타성을 지닌 타자로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를 들고 있다. 물론 이는 유대인적 전통에서 발현된 성서적 비유다. 우리는 시집 『님의 침묵』 곳곳에서도 이러한 고통받는 타자를 마주칠 수 있다.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보자.

41) 강영안, 앞의 책, p.140.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民籍이 없습니다.

「民籍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부분

이 시에는 가난한 자와 정조를 유린당하는 여인이 나온다. 이들을 능욕하는 것은 주인과 장군이다. 주인은 경제적 침탈이요, 장군은 군사적 침탈이다. 주인은 가난한 자가 그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의 인격과 생명을 파괴한다. 장군은 民籍 없는 여인이 자신보다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의 인권과 정조를 능욕한다.

물론 우리는 ‘民籍 없는 자’라는 직접적 표현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수탈당하는 피식민지 조선의 민중을 떠올릴 수 있다. 엄성원은 이 시에 나타난 화자들을 피식민지 조선의 하위주체로 보고, ‘당신’의 존재를 상실한 조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⁴²⁾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만해의 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동시에『님의 침묵』에서 ‘님’의 다층

42) 엄성원, 앞의 글, 앞의 책, p.42.

적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시의 화자들은 가난한 자와 능욕당하는 여인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통해 보자면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의 전형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체주의적 주체(주인, 장군)들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는 또 다른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다. 이 ‘이타성’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단순히 눈물을 쏟거나 격분을 스스로의 슬픔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이 “칼(권력)과 황금(자본)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의 폭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포함한, 많은 타자를 고통받게 하는 전체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진단이 있는 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집 『님의 침묵』의 현재적 의미는 고통받는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주체의 자기 ‘초월-벗어남’에 있다. 유럽에서 레비나스가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체계화한 철학의 윤리학으로의 전환(레비나스는 이를 후설의 ‘제1철학으로서의 현상학’에 빗대어 ‘제1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이라 칭했다)을, 동아시아에서 한용운은 한 세대 앞서 문학적으로 선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말』의 마지막 문장, “나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여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야말로 만해의 ‘님’이다. 이 길 잃은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서준섭은 만해가 『님의 침묵』을 집필하기 직전에 탈고한 『심현담주해』에서 심현담 ‘일색’편의 다기망양(多岐亡羊) 모티프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불교적으로 해석했다.⁴³⁾ 정효구 역시 이 ‘어린 양’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 하근기(下根機) 중생으로 보는 불교적 해석을 택했다.⁴⁴⁾ 하지만 ‘길 잃은 어

43) 서준섭, 앞의 글, 앞의 책, p.37.

44) 정효구, 앞의 글, 앞의 책, p.396.

린 양’은 기독교에서도 대표적인 구원의 대상의 상징이기도 하다. 불교적 해석이든 기독교적 해석이든, 이 ‘어린 양’이 고통받는 타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석가는 중생을 자비로 대했고, 예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자비와 사랑 모두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을 때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의 종교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님의 침묵』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만해는 ‘님-타자’에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타성의 타자가 내리는 윤리적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집의 마지막 시 「사랑의 끝판」을 보자.

네 네 가요, 지금 곧 가요.

에그 등불을 켜려다가 초를 거꾸로 꽂았습니다그려. 저를 어찌나, 저 사람들이 승보겠네.

님이여,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에그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하시네.

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이 싫겠습니까. 다만 님의 거문고줄이 완급을 잃을까 저퍼합니다.

님이여, 하늘도 없는 바다를 거쳐서, 느릅나무 그늘을 지어버리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는 빛입니다.

해를 탄 닭은 날개를 움직입니다.

마구에 매인 말은 굵을 칩니다.

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

-「사랑의 끝판」전문

‘님-타자’는 이제 시적 화자를 질책하고 명령한다. 시적 화자는 스스로의 일로 바쁘다고 생각하지만,님은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며 화자를 꾸짖는다. 그런데 화자는 님의 꾸지람을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로 그 질책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네 네 가요, 지금 곧 가요”라며 시의 처음과 끝에 반복된 화자의 자세는, 자신을 질책하는 ‘님-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등불을 켜려다가 초를 거꾸로 꽂았다”는 화자의 발언은 지금껏 ‘님-타자’를 사랑하는 ‘자신-주체’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이다. 주체는 타자의 윤리적 명령을 받아들일 때에만 타자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라는 시의 결구는 이제 한용운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님의 자리, 이타성과 타자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말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를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을 통해 해석해 보았다.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는 불교적, 민족주의적, 탈식민주의적, 형이상학적 관점 등 다기한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님의 침묵』의 ‘님’은 연인이자 불타이자 중생이자 조국이며 그 모든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님’의 의미를 시적 언어의 모호성 안에 남겨놓게 된다. 본 논문은 ‘님’의 다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석으로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타자성’을 제시하였다. ‘님’의 의미를 ‘타자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가지는 윤리학적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용운의 문학과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근대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을 살펴보았다. 만해는 1944년 입적했

고, 레비나스의 첫 번째 대표적 저작인 『존재에서 존재자로』는 1947년 출간됐다. 만해와 레비나스는 서로 영향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문학과 철학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 바로 ‘나-주체’가 ‘님-타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강조되는 윤리적인 문제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배자로서의 경험(한용운)과 독일 나치즘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의 경험(레비나스)이 생면부지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근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동일한 반성을 하게 했다. 이 반성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복원하고, 주체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초월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시집 『님의 침묵』에 실린 작품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님’이 어떤 면에서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님의 침묵』의 현재적 의미는 고통받는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주체의 자기 ‘초월 벗어남’에 있다. 유럽에서 레비나스가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체계화한 철학의 윤리학으로의 전환을, 동아시아에서 한용운은 한 세대 앞서 문학적으로 선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말』의 마지막 문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야말로 만해의 ‘님’이다. 이 상징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든, 레비나스가 말했던 고통받는 타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비와 사랑은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을 때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의 종교적 표현이다. 만해는 『님의 침묵』의 마지막 시 「사랑의 끝판」에서 ‘님-타자’에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타성의 타자가 내리는 윤리적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의 다의성을 포괄할 수 있는 철학적·윤리학적 개념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한용운, 『님의 침묵』, 미래사, 1991.

에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에마누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2. 논문 및 단행본

구연상, 「『님의 침묵』에서의 ‘님 찾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존재론연구』23호, 2010. 10.

김동우, 「승고와 계몽의 역설 : 한용운 시의 현재성」, 『한국시학연구』24호, 2009. 4.

김재홍,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시안』1호, 1998. 9.

서준섭,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사유의 특성과 동양과 서양 사상의 회통」, 『국어교육』134호, 2011. 2.

서준섭, 「한용운 『님의 침묵』과 『심현담』·『심현담주해』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014. 4.

엄성원, 「한용운 시의 탈식민주의적 특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31호, 2006. 6.

이상엽, 「존 던의 『님의 침묵』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 『밀턴과근세영문학』21호, 2011. 5.

이선이, 「萬海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 『한국시학연구』11호, 2004. 11.

_____, 「萬海詩와 當代詩의 영향관계에 관한 일고찰 -시어 ‘님’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20호, 2007. 12.

장철환, 「한용운 『님의 침묵』 연구 -주체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론총』55호, 2011. 12.

정연정, 「만해 한용운 시에 나타난 ‘바다’ 의식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12권 1호, 2013. 6.

정효구,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속의 『군말』 再考」, 『한국시학연구』35호, 2012. 12.

하재연, 「『조선』의 언어로 한용운에게 찾아온 ‘생각」, 『한국근대문학연구』20호, 2009. 10.

한경희, 「한용운 『님의 침묵』 연구」, 『어문학』113호, 2011. 9.

Abstract

A Study for the meaning of ‘Nim’
in Han Yong-un's 『The Silence of Nim』

Bae, Ho-Nam

This thesis trie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Nim’ in Han Yong-un’s 『The Silence of Nim』. This thesis suggest a interpretation that the ‘Otherness’ which Emmanuel Levinas’s philosophy essence can explain the ambiguity of ‘Nim’ in 『The Silence of Nim』. We can interpret the meaning of ‘Nim’ more accurately when we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 in Han Yong-un’s works.

Han Yong-un died in 1944, and Levinas published his first important book in 1947. Therefore between Han Yong-un and Levinas, there was no influence or effect each other. However, they both had a tragic experience from Fascism. Han Yong-un had suffered under Japan Imperialism, Levinas also had suffred from German Nazism. Such experience made them to introspect to modern totalism.

The value of 『The Silence of Nim』 is such introspection was achieved before Levias in literary way in East Asia. We can explain the meaning of ‘Nim’ based on Buddhism or Christianity. Either way we find that ‘Nim’ means ‘suffering others’ that Levinas told. 『The Silence of Nim』 shows spontaneous respond to the command of suffering others.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 that Levinas’s ‘otherness’ can expain efficiently the ambiguity of ‘Nim’ in Han Yong-un’s 『The Silence of Nim』.

Key Word : Han Yong-un, Emmanuel Levinas, 『The Silence of Nim』, Nim, other, otherness, ethical philosophy, totalism

배호남

소속 : 초당대학교 교수

주소 : (534-701) 전남 무안군 무안읍 초당대학교 미래관 104호 교양학부 사무실

전화번호 : 010-2423-3476

전자우편 : ontheroad56@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2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
